

# 누구든지 자유롭게...

## 김민지 'You are Buddha' 展 3월 2일까지 서울 삼청동 스페이스선+

14일은 설 연휴인 동시에 '연인들의 날'인 밸런타인데이였다. 밸런타인데이에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해줘야 하지?"라는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밸런타인데이는 이미 지나갔지만, 아직 속재가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다가오는 화이트데이가 남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바로 세상에 하나뿐인 김민지(26)씨의 '특별한 주얼리'가 있기 때문이다.

선물리스트에 항상 1순위로 올라오는 주얼리인데, 새삼스레 뭐가 특별하다고 물으면 큰 오산이다. 김씨가 만든 주얼리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불교 주얼리'이기 때문이다.

"어? 그럼 단추나, 염주 아냐? 그런 너무 촌스럽잖아"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런 걱정 또한 접어둬야 한다. 그가 만든 '불교 주얼리'는 촌스러울 거라는 인식과 달리, 그 만의 독특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주얼리를 선사한다.

김씨의 주얼리들은 만(만)자 모양부터, 연꽃, 부처님 모양까지 다양한 불교의 상징들이 나뉘고 있지만 촌스럽다는 느낌보단 "한 번 착용해 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자극한다. 그만큼 그의 주얼리는 범상치 않다.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단순하게 '만'자로 된 커플반지나 목걸이 등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미삼아 주얼리를 만들게 됐죠. 그런데 예상외로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좋더라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주얼리 만드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쑥스러워하는 듯하면서도, 그의 말투에는 자신감과 패기가 묻어 나온다. 그만큼 자신이 만든 주얼리에 대해 자부심이 남다르다는 뜻 일거다. 김씨의 이런 재능과 끼는 이미 제1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에서 입증된 바 있다. 그는 공모전에서 2위로 입상할 만큼 디자인에 대한 감각과 재능이 남달랐다.

"원래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했어요. 하지만 오래전부터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동국대 미술학과로 편입해 불교미술을 다시 공부했어요. 지금은 단추 제가 만드는 주얼리 상품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리는데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 싶어요."

김씨의 이런 불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작은 호기심에서 출발한 주얼리는 이제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그만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됐다.

김씨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불교를 모티브로 주얼리를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부처라는 존재가 위대하고 큰 존재이지만, 누구든지 괴로움 없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길 바라는 마음을 내 작품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도 편안해지는 삶을 주얼리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김민지씨의 작품은 이처럼 단순히 몸을 치장하기만을 위한 주얼리가 아닌, 작품을 통해 세상에 자신과 불교를 드러낼 수 있는 값진 보물이다. 작지만, 그 작은 주얼리 안에 숨어있는 불교에 대한 그의 마음이 보석 보다 더욱 빛난다. 이런 속 깊은 그의 마음이 담긴 불교 주얼리 상품과 작품들은 현재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 40여 종이 넘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불교를 통해 디자인하고 싶다"는 김민지씨. 김씨의 주얼리 작품들은 서울 삼청동 스페이스 선+에서 3월 2일까지 열리는 'YOU ARE BUDDHA' 전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상품들은 불교용품전문쇼핑몰 참세상(www.chamkorea.co.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 “전통춤 출 때 가장 신나요”

## 27일 '오늘이 오늘이소서' 공연할 윤송미씨

"전통춤만 생각하면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어요. 제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일은 바로 전통춤을 추는 일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과거, 사람들의 인사가 주로 "식사는 하셨어요?"였던 것이 요즘은 "하시는 일은 할만 하세요?"로 바뀌었다. 이 인사에는 "살기는 어렵지 않느냐"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사느냐" "당신도 나처럼 힘든 상황이나" 등 많은 의미가 내포돼 있다. 그만큼 세상 살기가 각박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대에 따라 인사법은 바뀌기 마련이지만 "하시는 일은 할만 하세요?"라는 질문은 인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께미적인 구석이 있다. 한국전통무용계의 신예인 윤송미(47·사진)씨는 이런 질문에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다. 그녀는 무조건 '예스(Yes)'이다.

"초등학교 학예회 때 처음 한국무용을 접했어요. 그 후 계속 마음 한켠에 한국무용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죠. 무용을 늦게 시작하기도 했지만, 그래서인지 더욱 애착이 가요. 이제는 무용이 제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이런 윤송미에게 한때 무용은 단지 TV속에 나오는 동경의 대상에 불과했다. 윤송미씨는 과거 15년 이상을 직장 생활과, 의상코디네이터, 사업을 전전하다 8년 전 한국전통무용의 길에 들어섰다.

"순동작 하나하나, 춤사위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나도 저런 춤을 추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죠. 그래서 모든 일을 접고 춤추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



습니다."

윤씨는 매일 4-5시간을 춤 연습에 매진했다. 그 결과 2008년 대구 싹싹이춤의 이수자가 됐다. 6년 이상을 하하루도 거르지 않고 춤 연습에 매진한 윤씨는 짧은 무용경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로무용수들과 나란히 크고 작은 무대에 오르고 있다.

결국 윤씨의 실력은 최고의 춤꾼만 찾아 무대에 올리기로 정평이 난 동국예술기획 박동국 대표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윤송미씨는 지난해 20주년을 맞은 '명인명무전'에서 대구싹싹이춤을 선보이며 무대를 장식하기도 했다.

박동국 대표는 "윤송미씨가 처음 춤추는 것을 보고, 굉장히 영리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춤에 대한 몰입과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고 소개했다.

"첫 무대에 올랐을 때의 그 기분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충청도의 한 선원에서 독거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공연할 때였는데, 제 공연을 보고 예쁘다고 해 주시던 스님과 어르신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윤송미씨는 현재 정월 대보름을 맞아 동국예술기획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함께 기획한 '제31회 한국의 소리'와 '오늘이 오늘이소서' 공연을 앞두고 있다.

윤송미씨의 춤사위가 무대를 수놓을 '오늘이 오늘이소서' 공연은 2월 27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서대문문화회관 대극장 열린다. (02)360-8560

이은정 기자

## 선인들의 이야기책에 빠져보자

### 국립중앙도서관 3월 31일까지 고소설 전시회

국립중앙도서관(관장 모철민)이 3월 31일까지 고소설을 주제로 '선인들의 이야기책 속으로'전을 개최한다.

고소설의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 옛 선인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영웅소설, 장편소설, 애정소설, 전기소설, 판소리계소설, 중국소설 등 다양한 고소설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에는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와 한글소설 <홍길동전> <구운몽> <홍부전> 및 회귀소설로 알려진 <남홍향전> <천리구> <니화전> <해당화> 등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판소리계 소설의 대표작인 <춘향전>의 불어번역본 <Printemps Parfum>과 영어, 베트남어 등으로 번역된 다양한 판본 및 다채로운 표지의 펴치본과 사진들이 전시돼 눈길을 끈다. 이 자료들은 <춘향전>의 시대적인 변천사를 한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여서 교육적으로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 모철민 관장은 "이번 전시를 위해 다양한 고소설의 자료를 선별했다"며 "일반인들에게 고소설의 역사적 흐름과 배경을 알리고자 이 같은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02)535-4142 이은정 기자

#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텔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 현 대 칼 라 지 붓 공 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 수행도우미

기본종은 환희심나는 체험으로 수행생활의 기쁨을 누리세요



**발로 해 (특수기능성 양말)**

신는순간 따뜻해진 발  
노랑거나 갈라진 굳은살.  
모를모를, 모승모승  
피곤할 때 느끼는  
발뒤꿈치, 발뺨이름  
즉시 해소  
(절할때, 성지순례, 운전)



**스트레칭 토플**

절수형, 잠잘때 착용하면  
어깨 결리고, 시리고, 뺨뺨함,  
오십견과 스트레스 순간해소



**형명고요 (수행방석)**

배에 힘이 모아져 안정된 자세와  
집중력, 또렷함 유지  
수험생, 고시생, 컴퓨터, 운전할때  
플름 피로 완전 해소

오락오락밴티, 와산삼매요, 보석연꽃밴티,  
금강저조끼, 기도포, 팔관예인 (손목, 무릎보호대),  
칼라차크라, 배요온대, 다보명자, 아마따자

서울법당 (02) 456-0035 부산법당(051) 583-7886  
대구법당(053) 743-0063 광주법당(062) 375-3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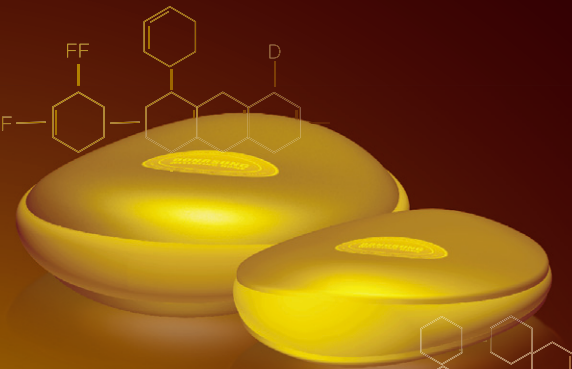
www.법왕정사.kr

## GOLD Bulgama

### 황금빛 찹질로 건강100세!

“우리 몸을 따뜻하게 다스리는 황금빛 찹질” 불가마 골드 은열요법은 우리 가정에 쉽고 편리한 찹질 문화를 선사합니다.

- 불가마 골드는 5분 충전으로 2-3시간의 무선온열 찹질 체험
- 삼미준바이오, 토르마린, 비정탄 등 배합으로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
- 금 도금처리, 은열요법 및 파동요법, 유헤과 중화 기능



본 제품에 제공되는 복대 및 온열주머니를 활용하여 위와 같이 편리하게 찹질하십시오.

(주) 동성행방 | 심전 대리점 송정미  
011-9865-9401/070-7523-9401